

‘전주 이팝나무 축제’ 대성황

올해 총 10만여명 방문… 전주 대표 봄 축제 자리매김

봄철을 맞아 전주시 팔복동 철길에서 펼쳐진 ‘2025 전주 이팝나무 축제’가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3일~6일까지 총 6일간 팔복예술공장 인근 북전주선 약 630m 구간에서 펼쳐진 ‘2025 전주 이팝나무 축제’가 경제·문화적 성과를 동시에 거두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팔복동 산업단지 속 철길을 시민에게 개방한 이번 축제는 지역기업과 공동체가 함께 만든 참여형 축제로, 야간 개방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더해져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했다. 이번 축제에는 바이전주 우수기업과 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 소속 기업 등을 포함한 60여 개 지역 업체가 참여해 약 3억 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가운데 이들 업체의 일부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봄철을 맞아 전주시 팔복동 철길에서 펼쳐진 ‘2025 전주 이팝나무 축제’가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운영부스는 타지역 축제 대비 10~30% 낮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했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격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해 ‘믿고 찾는 축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한 버스 운영 외에도 버블쇼와 전통놀이 체험, 야간 EDM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돼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으며, 어린이날 연휴와 맞물려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된 ‘임리 마티스 & 라울

뒤피’ 전시회에는 7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형 콘텐츠로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시는 한국철도공사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안전요원과 주차 인력, 미아보호소, 의료부스 운영 등 세심한 현장 관리에 힘써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이번 축제는 △다화용기 사용 △폐기물 감축 △소음 사전 안내 등 친환경 축제로 운영됐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이팝나무와 철도가 결합된 전시·굿즈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는 등 이팝나무 시즌을 전주만의 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합리적인 가격 운영, 시민 체험 중심 콘텐츠 구성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 인증 명소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시 가공식품 홍보관인 ‘전주맛배기’와 전주의 맛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 참가한다.

‘전주맛배기’ 통해 전주 맛 홍보

전주시 가공식품 홍보관,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참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전주시 가공식품 홍보관인 ‘전주맛배기’와 전주의 맛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식품·관광 관련 온·오프라인 융복합 홍보전 형식으로 마련됐다. 특히 파워 유튜버 100여 개 채널이 현장을 방문해서 참가업체의 상품을 리뷰하고, 홍보영상 제작과 라이브커머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영상 중심 박람회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식품홍보관(전주맛배기)’ 부스로 참여해 맛의 본고장 전주의 가공식품 10여 종과 전주시 농산물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전시·홍보하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다양한 맛에 대해 알린다.

또한 전주시 농식품기업인 이노푸드와 (주)열한시오십분도 함께 참가해 각각 쌀아이스크림믹스와 메밀소버밀 키트 제품을 선보인다. 참여기업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식 및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K-웰니스 박람회의 특징인 영상 기반 홍보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전주의 농식품기업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국내 대형 유통 바이어들과의 상담회를 통해 전주시 농식품기업의 판로 확대와 시장 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는 전주시 농식품기업 제품을 전국에 알리고,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과 농식품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박람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구 대한방직 아파트 초고가 분양가 논란… 환경단체 반발

평당 2500~3000만원으로 알려져… 전북녹색환경운동연합·한승우 전주시의원, 대폭 인하 촉구

전주시 효자동 구 대한방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북녹색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전주시청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췌자)광역이 제시한 분양가는 앞으로 전주지역을 고분양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1,490만원과 기자촌의 2배를 넘는 수치로 나타나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것인 만큼 앞으로 가져올 분양가 형평성 논란과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만큼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이유가 없다”고

분양가의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며 분양가 산정기준·택지 비용·건축비 내역 공개, 시의회와 시민 감시단 검증, 승인 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행보증증권 등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151명 검정고시 합격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151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지난 5일 전주온빛중학교에서 치러진 ‘2025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서 총 153명의 응시인원 중 151명(초 8명, 중 22명, 고 121명)이 합격해 98.7%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주시 꿈드림은 이번 검정고시에서 총 7명의 만점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검정고시 이후에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입시 설명회와 1:1 진로진학 컨설팅 등에 연계해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지난 2

월부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육협력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검정고시에 대비해 개인·소그룹 멘토링과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지난 2023년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육협력 지원사업’은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도내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주소지를 전주로 둔 대학(원)생으로 꿈멘토단을 구성하고, 학습 및 정서 멘토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초 학습 능력 향상과 사회성 증진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정혜선 센터장은 “본인의 학력 취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쓴 청소년들이 기특하다”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또는 취업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 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14일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덕진공원과 전북대학교 주변에서 시민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와 완산·덕진구청 담당 공무원과 완산구·덕진구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시민과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기본 안전 수칙과 식재료 관리 방법 등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시는 식중독 예방 홍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덜어 먹기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나트륨 절감 건강식단 실천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의 날 전주 식품안전주간 동안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30명을 16개조로 편성해 전주지역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46곳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